

자연친화적 무주 등방천 만든다

군, 환경청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 얻어 내년 실시설계 시작으로 본격 추진

무주 덕유산의 젖줄인 등방천이 깨끗한 수질로 새단장되면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무주군 설천면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청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을 얻어 2021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과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스키장으로 인한 개발 등으로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교란되고, 관광산업으로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는 등방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해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다.

군은 2019년 수생태계 복원계획 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18일 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음에 따라 2021년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수질정화 습지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생태호안공, 자연형 여울조성과 생태탐방로, 관찰데크 등을 설치한다.

훼손된 수생태계를 복원해 물고기가 뛰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아름다운 하천 경관

으로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물론 다양한 친환경 교육장으로 이용 될 전망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수질 개선은 물론이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이용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2년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4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코로나19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안군민 코로나19 무료 검사

무증상 감염원 차단 위해 전 군민 대상 5개소서 실시

진안군은 28일 코로나19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진안군 #1 확진자가 첫 발생 후 #2, #3 확진자까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은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임시선별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에 나섰다.

이에 따라 2개소에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3개소 추가하여 총 5개소로 늘려 운영한다.

27일부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1개 추가해 2개소로 운영하고, 만남의광장(진안읍 군하리 223-2)에 임시 선별진료소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본래 운영 중이던 진안군의료원 선별진

료소 1개소는 그대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보건소 2개소가 9시~20시까지며 그 외 선별진료소는 9시~18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 및 역학조사반 확대운영으로 보건소(진료 및 예방접종 업무) 및 12개 보건진료소 종사자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면지역 환자들은 보건진료소 및 병·의원을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전춘성 군수는 “더 이상의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행정에서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셔서 우리군을 스스로 지켜내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취소와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 주세요

장수군, 홍보 캠페인 행사 전개

장수군은 장계면 일대에서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행사를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계시장 및 변화가 일원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연말연시 특별방역 홍보 및 음식점 등에서 방역상태를 점검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홍보 용품을 통한 안전신문고 이용 독려, 지진 대피요령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주민들이 자연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취소와 멈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장계면 일대에서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행사를 펼쳤다.

이어 “장수군은 앞으로도 모든 행정 자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형설지공도서관, 100일 이상 연체도서 대상 ‘방문수거’ 시행

무주 형설지공도서관이 100일 이상 연체도서를 대상으로 ‘방문수거’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100일 이상 연체도서가 총 45권으로, 반납 알림 문자메시지와 전화, 독촉장을 발송했으나 반납되지 않은 연체도서에 대해 이루어 질 예정이며, 2개조 4명의 방문수거반을 구성해 수거가 진행된다.

형설지공도서관은 1일 이상 연체자에 대해 문자메시지, 30일 이상 연체

자는 반납독촉장 발송, 10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하에 방문, 수거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도서 연체 사전방지를 위해 회원 가입 시 반납예정일 문자서비스 수신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형설지공도서관에서는 원활한 도서 순환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인 반납기(무주군청 1층 로비, 예체문화관 2층) 2대를 운영 중이다.

도서관립 손주양 주무관은 “책을 제 때 반납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가 대여할 수 없다”면서 “도서순환 차원에서 장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수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12월 14일 개관한 형설지공도서관은 역사, 철학, 아동도서 등 4만3,000여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유열람실 66석을 갖춰 ‘형설지공’의 꿈을 갖고 있는 이용객들을 맞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에 인재양성 위한 장학금 기탁 잇따라

연말을 맞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사)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사)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신병철 회장, 정동익 전북지역본부장, 이유희 팀장이 참석했다. 신병철 회장은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와 무주군이 인연을 맺으면서,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장학금 기탁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설천면 김경자 씨도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 씨는 “무주의 미래

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학금 기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실천면 주민자치 위원 및 구헌동 원추리 봉사단(덕유산 자원봉사단) 회장으로 무주군을 위해 항상 앞장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인홍 이사장은 “무주군 인재육성에 앞장서 주시고 있는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와 김경자 씨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무주군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관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

장수군이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상시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지방세 실적 평가에서 장수군은 체납세 징수율, 번호판 영치, 공매실적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2020.6.~11.)을 운영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대포차량 정리 등 체납세 징수활동에 적극 펼쳤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장수군은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체납자를 분리해 맞춤형 체납 징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종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진안군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사회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총 9건의 적극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실적검증, 1차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및 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의 공무원들을 선발했다.

이번 우수 공무원으로 뽑힌 사례에는 ▲최우수는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국토부 지역개발 연계형 공모사업의 관광과 전지민 주무관 ▲우수는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결집돌 규제 개선의 문화체육과 학예연구사 엄기일 주무관 ▲장려는 지역의 문체는 지역에서 해결하지는 취지의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한 지역내 자원연계 사업'의 성수민 김대환 팀장이 선정됐다.

진안군은 적극행정 우대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부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